

[QT 세미나]

역사란 '묵상'의 전쟁터이다

이상규 목사 / 1999 / 페이지수: 2

“예수님의 제자훈련은 수천년의 유대주의가 골수에 사무치도록 박혀 주야로 그 사상만을 묵상하고 그 관점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제자들 속에 새로운 사상과 말을 아로새겨 주야로 묵상시키며 말하고 행하게 하려는 목숨 건 묵상의 주도권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다.”

1. 묵상의 주도권 쟁탈전

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진행을 돕거나 가로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. 단적인 예로 시몬 베드로가 하늘의 감동을 따라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며 올바르게 고백했을 때에는 주의 교회를 그 위에 세울 '반석(rock)'이 되었지만, 십자가를 거절하고 '그리마옵소서'하며 마음 속 깊이 박혀 있는 유대주의적 메시아 관을 주장하는 순간 그는 주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적 '걸림돌(stumbling block)'이 되었던 것이다(마 16:15~28).

여기서 시몬 베드로의 신앙고백과 자기주장을 묵상의 관점에서 본 것은 정확한 이해이다. 왜냐하면 '말'이란 마음에 가득한 것, 묵상되고 확신된 것을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. 특히 구약과 신약 속의 유대주의에서의 교육과 앎이란 앎으나 서나, 들어오나 나가나 가르쳐서 마음 판에 그 내용을 새겨 놓는 무섭도록 강력한 과정이기 때문이다.

이런 의미에서 볼 때 12제자를 불러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며 가르치신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수천 년의 유대주의가 골수에 사무치도록 박혀 주야로 그 사상만을 묵상하고 그 관점에 사로잡혀 노예처럼 살아가던 열두 남자의 마음속에 새로운 사상과 말을 아로새겨 주야로 묵상시키며 말하고 행하고 하려는 목숨을 건 묵상의 주도권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다.

2. 이데올로기를 묵상했던 시절

북한과 남한의 갈라진 골이 그토록 깊은 것도 알고 보면 지리적 분단 이상의 사실이 아니던가. 공산주의,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어려서부터 마음과 골수에 쇠말뚝을 박듯 박아 놓아 하루 종일 그 관점을 묵상하게 만들어 놓은 데 그 심각성이 있다. 목숨을 걸고 서로를 죽여야만 했던 민족사적 상흔은 묵상의 힘과 두려움을 동시에 일깨우기에 충분하다.

그러고 보면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는 이 '묵상'에 대해 남다른 역사적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. 그래서 더욱 우리는 묵상에 대한 남다른 태도가 있어야만 한다. 올바른 내용 - '선과 생명'의 사상,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주야로 묵상하는 일에 비상한 각오로 임할 필요가 있다. 피상적 성경공부, 그저 재미로 끝나는 교회 교육이란 있을 수 없다. 우리는 이 종말적 위기와 유혹의 시대 속에서 내 마음이 허탄하고도 너절한 이 세대의 풍속에 찬탈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에 사로잡히게 해야 한다. “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(잠 4:23).”, “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(엡

5:16).”

3. QT는 탁월한 삶의 지혜

이런 의미에서 ‘QT’라는 개념의 경건훈련 방식은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원리가 아닐 수 없다. 딱히 ‘QT’라 부르지 않고도 말씀묵상을 강조하고 권고할 수 있는 길이 가능하겠으나 정확하게 ‘말씀’과 ‘묵상’을 연관시켜 정기적으로 묵상하게끔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‘QT’는 우리의 산만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삶의 우선순위를 상기시켜 꼭 하루 한번이라도 말씀 묵상에 임하게 하는 탁월한 삶의 지혜가 아닐 수 없다.

* 출처 : QT신문